

제주 돌담의 가치와 돌담 속 숨겨진 선조들의 지혜 찾기

정광중*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주 돌담이 지니는 가치 발굴과 함께 돌담 속에 숨겨진 선조들의 지혜를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 돌담이 지니는 가치는 생활 문화적 가치, 경관적 가치, 학술적 가치 및 유산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주 돌담에 숨겨진 선조들의 지혜 찾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의 지혜, 즉 거친 자연환경을 극복하려는 지혜, 타인을 배려하는 지혜 그리고 서로 협력하며 공동체를 우선시 하는 지혜를 강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혜는 제주 선조들이 삼재로 대변되는 자연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화목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로 필자의 연구경험과 이미 발표된 선행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진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돌담이 지니는 가치나 거기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 찾기는 또 다른 관점

* 제주대학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교수

의 추적도 충분히 가능하다. 앞으로 그러한 연구 성과들이 연이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제어: 제주 돌담, 생활 문화적 가치, 경관적 가치, 학술적 가치,
유산적 가치, 자연환경, 공동체 사회, 화목한 사회

I. 머리말

제주 돌담은 제주도민들의 피와 땀의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오랜 세월의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돌담을 쌓고, 또 쌓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만 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돌담을 활용한 농업적 생산 활동은 한층 더 증대되었고 더불어 제주도민들의 삶의 영역도 안정되며 편이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한다면, 탐라국의 태동기를 기점으로 2000년 이상의 세월을 이어온 제주도민들의 삶의 역사는 마치 자신들이 쌓아 올린 ‘돌담’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쌓아올리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묵묵하게 한 자리를 지키면서 온갖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돌담이 제주도민들의 인생사와도 유사하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제주 섬의 자연환경은 제주도민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녹록치 않았고, 제주도민들은 주어진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도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돌담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지혜를 발휘해온 것이다. 거칠고 거친 제주 섬의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든 생활영역에서 돌담만큼 효용성이 높은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돌담 쌓기는 제주도민들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을 전제해 볼 때, 제주 돌담이 지니는 가치가 대체 무엇이고, 또 돌담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제주도민들의 숨은 지혜는 무엇인가가 매우 궁금해진다. 이 글에서는 제주 돌담이 지니는 가치를 그동안 진행돼온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정리하고(고성보 외, 1998; 이윤희·고광민, 2006; 정광중, 2012a; 정광중, 2012b; 정광중·강성기, 2013; 김유정, 2012; 김유정, 2015), 이어서 제주 돌담에 숨겨져 있는 제주선조들의 지혜를 찾는데 초점을 두어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좀 더 치밀한 돌담 연구가 진행된다면, 본 연구에서 다룬 돌담의 가치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발굴할 수 있으며, 선조들의 지혜도 한층 더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글에서 돌담 축조 및 활용과 관련된 내용의 서술 시점은 주로 제주도가 전통적 사회를 잘 유지하던 시기인 1970년대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II. 제주 돌담의 가치

제주 돌담의 가치는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생활 문화적 가치, 경관적(미학적) 가치, 학술적 가치 및 유산적 가치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들 네 가지 관점의 내용은, 현시점에서는 제주 돌담이 지니는 ‘단순한 보편적 가치(Simple Universal Value)’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세계유산이 지니는 조건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로 승화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제주 돌담은 분명히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를 발휘하는 존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생활 문화적 가치

제주 돌담은 제주도민들의 전통문화를 떠받쳐온 중요한 근간이다. 적어도 1970년대 이전까지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은 자연에 의존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다(정광중, 2016: 257). 그것은 제주 섬의 자연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탁월한 점도 있겠지만, 육지 부와는 멀리 떨어져 위치하는 지리적인 특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자나 재료들을 섬 내에서 확보하고 조달해야만 하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해 볼 때, 돌 자원은 제주도민들에게 있어 무궁무진한 혜택을 안겨다 준 고마운 존재로 작용하기도 했다. 물론 제주도가 대부분 화산회토로 뒤덮인 섬 지역이어서 농업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암반과 작지(자갈)들이 방해되기도 하고, 연안바다에서 어로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배가 암초에 걸려 파손되는 일이 다반사인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면을 고려해 본다면 돌 자원은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효용성이 높은 다면적 기능체로서 존재적 가치가 높게 부각된다.

제주도내 곳곳에서 아무런 대가없이 얻을 수 있는 돌 자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과연 제주도민들의 생활상은 어떠했을까. 무의미한 가정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세계자연유산의 섬, 세계지질공원의 섬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섬으로서, 제주도의 색채를 제대로 발산하며, 세계인들에게 대놓고 자랑할 만한 지역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주 섬에서는 누구든지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큼의 돌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돌문화의 전통을 공고히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이야말로, 제주문화의 중요한 영역이 돌 자원을 매개체로 한 서민문화이자 전통문화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만일 일부 계층만이 돌 자원을 독점하여 활용하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제주도 어느 지역에서나 인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의 특징과 정서는 담보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

황을 고려해 볼 때, 돌 자원은 제주 돌문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의 생활을 반영하는 돌담은 거주지에 집을 짓고, 또 집터의 가장자리를 구획하고, 통시와 우영팻(텃밭)의 경계를 나누는 등 택지의 공간구조를 명확히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서부터 확인된다. 나아가 택지 내부로 들어오는 입구에 축조된 올렛담도 가족들의 보금자리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인식되는 생활문화의 특징을 담고 있다<표 1>. 바로 이러한 돌담의 기능과 특성이 제주 섬의 생활 문화적 가치를 발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제주도민들의 거주지인 주택과 통시, 우영팻과 올레 등의 부속시설은 제주도민들의 삶의 기저를 이루는 기초적 생활공간으로서, 말하자면 생활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요소들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제주 돌담의 생활 문화적 가치는 모든 제주도민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한 배경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정광중·김은석, 2008: 22-23).

<표 1> 제주도민의 기초적 생활공간(택지 내부와 입구)에서 확인되는 돌담의 종류와 기능

돌담 종류		장소/위치	기능	축조 형태
택지 내부	축담	가옥의 벽체	가옥의 지지, 내부 공간 확보	외담 및 겹담
	올담 (집담)	택지 가장자리	경계선, 눈비바람 차단, 시선차단, 우마 침입 방지	외담
	통삿담	화장실 가장자리	시선차단, 돼지보호, 오물의 누출차단	외담
	우영담	텃밭(채전) 가장자리	경계선, 바람차단	외담
택지 입구	올렛담	마을길-택지 입구	바람차단, 시선차단	외담

자료: 정광중, 2012b, p.490의 <표 2>를 수정·보완.

2. 경 관 적 가 치

제주 돌담이 경관적 가치를 두루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정광중·강성기, 2013: 109). 그렇다면 제주 돌담의 경관적 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과 시각에서 찾아야 할까. 제주 돌담은 외형적으로 보면 매우 서민적이고 투박함이 절로 묻어 나온다. 이것은 아마도 검은 색 현무암이 풍겨내는 가시적인 이미지와 함께 돌담 자체가 질서정연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자유분방하게 자리 잡은 분포패턴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렇지만 제주 돌담의 경관적 가치는 현무암이 자아내는 소박함과 투박함이 오히려 제주도민들의 삶의 정서와 생활사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제주 돌담이 경관적 가치를 발산하는 이면에는 제주도민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삶의 정서와 역사, 문화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주 돌담의 경관적 가치를 형태미(形態美)에 바탕을 두자면, 기본적으로는 선(線)과 면(面)의 조화로운 관계 패턴에서 강하게 부각된다. 먼저 제주 돌담이 자아내는 선형(線形) 패턴에는 직선과 곡선 패턴으로 구분되는데, 직선 패턴에는 밭담, 산담, 성담, 잣성(잣담) 등에서 두드러지고, 곡선 패턴에서는 울담(집담), 울렛담, 봉천수 돌담, 신당 돌담, 불턱담, 원담(갯담), 포구 돌담 등에서 탁월한 가시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 돌담 경관요소들은 직선이나 곡선 패턴의 어느 한 가지로만 입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와 장소에 따라 선형 패턴은 달라지기도 한다(그림 1, 그림 2). 이것이 바로 제주 돌담의 경관적 가치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다.

면형(面形) 패턴은 돌담 경관요소들이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로 어우러져 부각되는 시각적 이미지와 연관된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밭담, 산담, 성담이든 아니면 울담, 봉천수 돌담, 신당 돌담, 불턱담, 원담이든 일정한 면적을 두고 사방이 돌담으로 둘러 쌓인 축조 형태에서 면형 패턴은 가시적으로 살아난다(그림 3, 그림 4).



〈그림 1〉 하도리 발담(직선형 패턴)
자료: 필자 촬영(2012년 4월)



〈그림 2〉 김녕리 발담(곡선형 패턴)
자료: 필자 촬영(2013년 2월)



〈그림 3〉 좌보미오름 사면 산담(면형 패턴)
자료: 필자 촬영(2016년 10월)



〈그림 4〉 하도리 불턱담(면형 패턴)
자료: 필자 촬영(2016년 7월)

이처럼 제주 돌담의 선형 패턴 혹은 면형 패턴은 택지와 경지는 물론이고 무덤, 봉천수와 용천수, 불턱과 포구 나아가 연안바다의 원(垣)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민들의 생활전선에는 어김 없이 돌담의 존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가시성이 탁월한 미학적 구조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제주 돌담의 경관적 가치는 제주도민들의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 탄생된 배경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정광중, 2012a: 330). 그 특별한 필요성은 애초부터 제주도민들이 제주 섬 전체를 빼어난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계획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에서 돌담 경관요소마다 반드시 필요한 장소와 위치에, 필요한 만큼의 면적을 정하여, 또 필요한 만큼의 높이와 너비로 돌담을 축조했다는 것이며,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제주 돌담

이 미학적 감상미가 뛰어난 경관요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정광중, 2013).

제주 돌담의 경관적 특징은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지는 풍경화처럼,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이어지다가는 끊기고, 끊겼다가는 다시 이어지는 아메바(ameba)나 퍼즐(puzzle)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를 드러우면서, 전체적으로는 소박하고 자유분방한 시각적 이미지와 상징성을 표출한다는 점에 있다. 결과적으로 제주 돌담의 경관적 가치는 제주도민들의 생활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일정한 목적에 따라 반드시 위치해야 할 장소에 입지한 결과, 일정한 선과 면이 형성되는 특이한 구조적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배경을 이해해야만 한다(정광중, 2012b: 493).

3. 학술적 가치

제주 돌담이 지니는 학술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제주 돌담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도 아직은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러나 이점은 향후 중차대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 돌담이 지니는 일반적인 특징이나 돌담의 기원, 배경과 역사 혹은 돌담의 종류별 기능과 필요성, 축조방법 등에 대한 인문학적 혹은 사회과학적 접근은 일부 시도되고 있지만¹⁾, 자연과학적

1)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① 김종석, 1998, 제주도 전통 사회의 돌(石)문화,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② 강정효, 2000, 화산 섬 돌이야기, 도서출판 각. ③ 이윤형·고광민, 2006,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④ 강성기, 2010, 초등 사회과 교육에서의 비교 지역 관점을 위한 문화경관 이해의 유용성-제주 돌담경관과 유럽 보카주 경관의 사례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⑤ 강성기, 2011, 문화경관으로서 제주 발담의 의미,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3), 223-233. ⑥ 김유정, 2012, 제주의 돌문화, 서귀포문화원. ⑦ 김유정, 2015, 제주 돌담, 대원사.

접근은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선 제주 돌담의 학술적 가치는 탐라국의 태동을 알리는 시점에서 보면, 제주 돌담이 적어도 2000년 이상에 걸친 제주도민들의 생활사와 생활문화를 파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실체적 대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제주 돌담은 제주 섬에 사람들이 정착한 이후 집단적인 거주지가 형성되면서부터 점진적으로 축조했을 것이라는 배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돌담은 ‘나’와 ‘남’을 구별하면서도, ‘우리’ 혹은 ‘공동체’를 탄생시킨 사회적-문화적 기능체로 작용하였다(정광중, 2012b: 489).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제주 돌담의 학술적 접근은 바로 제주도민들이 발전시켜 온 생활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첩경으로 이어진다. 제주도민들의 독특한 생활사와 문화는 제주도가 화산섬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특성과 제한된 공간이라는 배경 속에서, 반도부나 주변 다른 도시와는 다른 생활환경을 반영하며 축적돼 왔다. 만약 제주도에 돌담을 쌓지 않는 문화, 돌담이 없는 문화가 전승되어 왔다고 가정한다면, 제주도민들의 삶의 형태는 크게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러한 사실과 연관시켜, 앞으로 제주 돌담에 대한 생활사적, 문화사적 연구가 한층 더 심화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 돌담의 실체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제주 돌담의 학술적 가치는 제주도민들의 척박한 자연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고체계와 행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 제주 섬의 거칠고 가혹한 자연환경은 삼재(水災, 旱災, 風災)와 여름철 태풍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 제주 돌담은 이들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요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 돌담은 장소와 위치에 따라 여러 종류와 형태가 존재하지만(표 2), 그것들은 나름대로 특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설치되었거나 축조되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돌담은 서로가 품고 있는 의미나 성격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가령, 제주 돌담의 대표 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받담은 경작지의 가장자리를 에워싼 돌담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경계선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이외에 우마의 침입 방지, 바람에 의한 작물보호, 토양침식 방지, 염해 방지, 경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부차적인 기능도 담당한다. 그리고 산담은 사자(死者)의 거주 공간 확보(경계선)라는 중심적 기능 외에 우마의 침입 방지, 들불로부터의 보호, 홍수·폭우·강풍으로부터의 보호 등 부차적인 기능도 강조된다(정광중·강성기, 2013: 105). 나아가 택지의 가장자리를 두른 울담도 거주지 경계선으로서의 중심적 기능 외에 외부인의 시선 차단, 눈비바람과 먼지 차단, 우마의 침입 방지 등 부차적 기능도 당연히 뒤따른다.

이상과 같이 제주 돌담의 중심을 이루는 받담, 산담 및 울담의 사례만 보더라도, 종류의 다양성 이면에 공통적인 기능이 분명히 존재하면서 차별적인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주 돌담이 지닌 기능적 특성은 결과적으로 제주도민들이 삼재(三災)로 대변되는 혹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자 목적에 의해 부여된 것임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제주 돌담이 적재적소에 입지하게 된 배경에는 궁극적으로 제주도민들의 사고체계가 강렬하게 작용한 결과로서 구체적인 행위와 연결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 배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돌담이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한다면, 제주 돌담이 지니는 학술적 가치는 당연히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앞에서 지적인 대주제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가 단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돼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제주 돌담의 대표적 사례를 통해서 본 중심적 기능과 부차적 기능

돌담 종류	장소/위치	기 능		축조 형태
		중심적 기능	부차적 기능	
울담 (집담)	택지 가장자리	경계선	눈비바람 차단, 시선차단, 우마 침입 방지	외담
밭담	경작지 가장자리	경계선	우마 침입 방지, 바람차단(작물보호, 침식방지, 염해방지), 경작지의 효율적 관리, 생산성 향상	외담 (일부 겹담)
산담	묘지 가장자리	경계선 기능을 겸한 사자(死者)의 주거 공간 확보	우마 침입 방지, 들불로부터의 보호, 홍수·폭우·강풍으로 부터의 보호	외담 및 겹담

자료: 정광중, 2012b, p.490의 <표 2>를 수정·보완.

4. 유산적 가치

앞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한 제주 돌담의 가치를 전체해 볼 때,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치는 유산적 가치로 귀결된다. 제주 돌담의 유산적 가치는 돌담 경관의 분포적 특성, 돌담 경관요소의 다양성, 생활문화의 전승적 측면을 고려하여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돌담 경관의 분포적 특성에서는 제주도 면적이 1,849.02km² (2014년)로, 한국 전체 면적(99,720km²)의 1.9%에 지나지 않는 작은 면적에 불과하지만, 국내의 다른 지역과 대비해 볼 때 다양한 돌담 경관요소들이 적재적소에 분포하거나 특정 지구에 밀집되어 분포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더불어 제주도 내에서도 동서남북 방향의 어느 지역에서도 돌담 경관과 마주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돌담 경관요소의 다양성과 밀집도 면에서 국내지역을 대표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제주도는, 세계적인 스케일에서는 분명히 공간적인 범위

의 한계성을 지닌 섬 지역이지만, 2000년 이상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탄생된 돌담 경관요소들이 요소요소에 분포하고 있다는 배경이 큰 강점으로 부각된다.

제주도내 요소요소에 산재하는 특징적인 돌담 경관요소를 가시적 유형과 분포지역, 출현강도를 고려하여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이들의 특징은 지도상에서는 주로 점(點)과 선(線) 혹은 면(面)으로 표현되는 경관요소들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경관요소들의 분포상황을 한 장의 지도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게 큰 단점이기도 하다. 제주도의 돌담 경관 중에서도 지역 내의 분포밀도나 빈도수, 출현강도에서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은 밭담과 산담이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접촉이 많은 돌담 경관요소는 택지 내부와 입구에서 확인되는 울담과 올렛담 또는 마을길 돌담이다. 따라서 주로 마을 외부에서는 전자인 밭담과 산담이, 마을 내부에서는 후자인 울담, 올렛담과 마을길 돌담이 제주 돌담 경관의 중심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분포상황을 보면, 밭담은 제주도 북서부, 북동부 및 남동부 지역에 전형적으로 잘 나타나는 반면, 남서부는 상대적으로 분포밀도와 빈도수, 출현강도에서 떨어진다. 산담은 특히 북동부의 오름 사면에 집중되는 분포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울담을 비롯한 올렛담과 마을길 돌담은 1970년대 이전과 같이 전형적인 형태는 아닐지라도, 현시점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여러 마을에서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돌담 경관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돌담 경관요소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점(點)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관요소, 선(線)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관요소 그리고 선과 선이 만나 면(面)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관요소의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표 3>과 같은 유형 구분을 시도한 배경은 다양한 제주 돌담의 경관적 특성을 서로 대비하여 파악할 수 있고, 더불어 지역단위의 경관으로서 지역적 경관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담 경관요소별로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는 선과 면으로 파악되

는 울담, 우영담, 올렛담, 발담, 산담, 신당 돌담, 원담, 포구용 돌담 등의 요소가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점으로 파악되는 방사탑과 도대불 그리고 선으로 파악되는 마을길 돌담, 잣성, 환해장성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돌담 경관요소별로 분포지역의 특성이나 출현강도를 논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뒤따르지만, 택지 내부와 입구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돌담 경관요소들은 도내 일부지역이나 또는 전도적인 분포상황을 보이는 가운데 출현강도에서는 모두가 ‘중간’과 ‘미약’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나아가 택지 외부에서 확인되는 돌담 경관요소들은 전도에서 확인되는 발담을 비롯한 산담, 신당 돌담 및 포제단 돌담이 상대적으로 출현강도가 ‘강함’ 정도를 보이지만, 나머지 4·3 성담, 봉천수 돌담, 도대불, 불턱담, 원담 등도 ‘중간’과 ‘미약’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제주 돌담의 유산적 가치를 전제할 때, <표 3>에 제시된 제주 돌담의 대표적인 경관요소들은 가능한 한 앞으로도 온전하게 보전되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제주 돌담의 유산적 가치는 점점 더 퇴색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가까운 장래에 돌담의 유산적 활용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이어서 제주 돌담의 유산적 가치와 관련된 생활문화의 전승적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강조할 수 있을까. 제주 돌담 경관은 제주도민들이 2000년 이상이나 제주 섬에 정착하여 터를 닦고 생활하면서 쌓아온 생활 문화유산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결과론적 관점의 해석일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조상대대로, 선세대에서 후세대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자연환경을 스스로 개척하고 적응하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왔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돌을 활용한 지혜를 어김없이 발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제주도민들의 생활문화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승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돌담은 전승문화의 한 축을 담당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 대표적인 제주 돌담 경관요소의 가시적(可視的) 유형,
분포지역 및 출현강도

돌문화	경관요소	가시적 유형	분포지역 및 출현강도	축조형태	비 고	
택지 내부 및 입구	축담	점, 면	도내 일부 / 미약	외담 및 접담		
	울(집)담	선, 면	전도 / 중간	외담		
	통짓담	선, 면	도내 일부 / 미약	외담		
	우영담	선, 면	전도 / 중간	외담		
	올랫담	선, 면	전도 / 중간	외담		
	마을길 돌담	선	도내 일부 / 중간	외담		
택지 외부	마을 내외부 지구	방사담	점	도내 일부 / 중간	-	70여기
		밭담	선, 면	전도 / 강함	외담(일부 접담)	
		산담	선, 면	전도 / 강함	외담 및 접담	
		성담/연대	선, 면 / 점	도내 일부 / 강함	접담	9개/23개
		4:3 성담	선, 면	도내 일부 / 미약	외담 및 접담	
		갯성	선	도내 일부 / 미약	외담 및 접담	
		봉천수 돌담	선, 면	도내 일부 / 중간	외담 및 접담	
		신당 돌담	선, 면	전도 / 강함	외담 및 접담	
		포제단 돌담	선, 면	전도 / 강함	외담 및 접담	
	해안 지구	도대불	점	도내 일부 / 미약	-	15기 전후
		불턱담	선, 면	도내 일부 / 미약	외담(일부 접담)	
		원담(갯담)	선, 면	도내 일부 / 중간	외담 및 접담	
		용천수 돌담	선, 면	도내 일부 / 중간	외담 및 접담	
		포구 돌담	선, 면	도내 일부 / 미약	외담 및 접담	
		환해장성	선	도내 일부 / 중간	접담	

주: 경관요소별 강도(強度)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필자의 임의적인 분류임.

이처럼 생활문화의 전승적 측면에서는, 제주도민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자연환경을 능동적으로 개척하고 적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외부 세력이나 집단의 압력에 의한 대응전략 속에서 제주 섬에 걸맞은, 그리고 제주도민의 생활양식에 어울리는 돌담문화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돌을 활용한 다양한 시설과 기능적 요체(要體)를 구축하기 위한 제주도민들의 경험적 기술과 지혜는 선세대에서 후세대로 면면히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시설과 요체들의 축조는 당연히 거칠고 험난한 자연환경을 극복함과 동시에 외부 세력을 견지하거나 제지하기 위한 필연성과 당위성이 전제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돌담은 제주도민들에 의한 경험적 지혜와 기술의 산물로서, 다양한 돌담 경관요소 자체는 제주 화산섬에 접합한 기능체(object of function)로 뿌리내리게 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²⁾.

III. 돌담에 숨겨진 선조들의 지혜 찾기

1. 거친 자연환경을 극복하려는 지혜

이미 앞에서 제주 돌담은 제주 섬의 거칠고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생활 문화적 소산물임을 강조하였다. 앞에 제시한 <표 1>과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돌담 경관 요소들은 저마다 차지하는 위치나 장소가 다양하면서 동시에 나름대로 기능적 특성도 다른 면모를 보인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대개 택지의 가장자리를 높게 쌓은 울담은 제주 돌담의 기본형이자 원형에 가깝다고 말

2) 필자의 이전 연구에서는 돌담을 ‘집합적 기능체’(다수의 돌 자원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로 구분한 바 있다(정광중, 2012a: 329-330).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초에 왜 울담을 축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자. 울담을 축조한 근본적인 이유나 배경이라면, 가족들이 거주하는 영역 확보에 대한 강렬한 의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자신이 얻은 주거지 소유권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작용한 것임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결국 울담은 주거지 소유권과 가족들의 생활을 위한 원초적 공간이라는 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리는 표식, 즉 경계선을 긋는 일일 것이다. 개개인이 선택한 주거지 가장자리에 서로가 돌담을 두르는 것조차도,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거칠고 척박한 화산섬 제주에서 개별 가족단위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자연에의 순응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울담은 개개인이 조성한 가옥과 부속시설의 안전은 물론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여기서 가옥과 부속시설의 안전이란 일차적으로 눈, 비바람, 강풍과 태풍 등 기후적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가옥내부의 구들과 상방, 정지 등은 물론이고 택지 내부인 마당이나 우영팻, 통시, 안뒤 등에도 비바람과 강풍이 불어 닥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거주지가 물바다를 이루거나 눈과 먼지, 쓰레기 등이 쌓여 필요 이상의 일손이 소모될 수도 있다. 또한 울담이 없다면, 집집마다 사육하는 소나 말, 닭과 개 등이 택지 내부로 들어와 온갖 구석을 어지럽힐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울담은 이웃 간의 입장을 서로 존중하는 소중한 보호막 기능도 추가되는 것이다. 이처럼 울담은 거친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과의 유대관계까지도 배려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발담에는 거친 자연환경을 극복하는데 어떤 지혜가 스며들어 있을까. 발담도 최초 단계에서는 개개인이 개간하면서 확보한 농경지 소유권에 대한 경계선 기능이 확고하게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로 발담을 축조해 보니, 강풍과 다우현상을 초래하는 제주 섬의 자연환경에는 더없이 필요한 농업시설이었음을 경

험적으로 체득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연중 강한 바람이 불어대는 황량한 들판의 전작지(田作地)에서 밭담의 존재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파풍효과(破風效果), 감풍효과(減風效果) 또는 약풍효과(弱風效果)로 최고의 구세주였지 않았을까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이들 효과로 인하여 돌담은 보리를 비롯한 조, 피, 콩 등과 같은 제주 섬의 식량작물은 그나마 수확 시기까지 줄기식물의 특성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농업시설로 뿌리내리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돌담은 강한 바람에 의해 토양의 표토 층이 휩쓸려 나가고, 또 집집마다 사육하는 우마가 경작지내 작물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상의 울담과 밭담 사례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제주도민들은 제각기 필요한 지점이나 장소에 나름대로 너비와 높이로 구안한 돌담을 축조함으로써, 거친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편리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다. 여기서 모든 돌담에 대하여 검토할 수는 없지만, 이외의 산담, 원담, 불턱담, 포구 돌담 등 여러 종류의 돌담에서도 제주도민들이 제주 섬의 거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유사한 지혜가 스며들어있음은 충분히 헤아려볼 수 있다.

2. 타인을 배려하는 지혜

제주 돌담은, 필요에 따라서는 타인과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지혜가 담긴 시설이기도 하다. 1970년대 이전, 초가가 밀집한 마을 안의 이웃집 사이는 울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근접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말하자면 이 울담은 내 집과 이웃집과의 경계선이기도 하고, 또한 서로 간에 우영팻과 마당, 안뒤 또는 마당과 마당을 나누는 경계선이기도 되기도 한다. 그런데 두 집 사이에 쌓는 울담은 서로 간 택지의 다른 구간보다는 비교적 낮게 쌓아올린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울담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이웃집 간에 서로 소통하기 위

한 수단으로 낮게 축조된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울담 자체는 이웃 간에 서로가 필요한 정보나 연락을 서로 취하면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한 창구가 되는 것이다(그림 5).

이웃 간에 접하는 울담너머로는 서로에게 필요한 농기구(호미, 낫, 나대, 쇠스랑 등)나 생활도구(키, 솔박, 체, 얼맹이 등)를 대여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낸 후에는 떡이나 음식 등을 건네주기도 한다. 또한 마실가는 일정을 서로 묻거나 아니면 농사일 관계 등을 의논하면서 수놓음 순서를 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웃 간에 서로 접하는 울담은 바람이나 눈과 비, 또는 타인의 시선과 가족의 침입 등 본래의 기능에서는 다소 벗어난, 말하자면 생활의 편리성이 전제된 시설이 된다. 결과적으로 생각할 때, 제주 섬에서는 택지를 둘러싼 울담에서조차도 서로가 이웃을 배려하고자 하는 정신과 지혜가 스며들어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밭들이 서로 엉키듯 대거 분포하는 지구에서는 잣질을 통해서도 남을 배려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잣질은 돌(또는 작지)로 만든 길이라는 의미이다. 제주도의 밭은 마을 내부에도 일부분 분포하지만, 여러 개별 가구들이 소유하는 대부분의 밭들은 마을을 벗어난 일정지구에 분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여러 가구들이 소유하는 밭들이 서로 인접하면서 연결돼 있는 지구에는 농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기는 하나, 이미 개설된 농로로는 접근할 수 없는 밭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말하자면 맹지전(盲地田)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맹지전을 소유한 농가주인들을 위하여 농로가 없는 밭과 밭 사이에 잣질을 만들어서 농로를 대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혜를 발휘했다(그림 6). 맹지전을 소유한 농가주인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잣질은 밭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 양쪽 밭의 경작과정에서 불필요한 큰 돌이나 작지들을 양쪽 밭의 가장자리를 따라 쌓으면서 만들어지는데, 비단 잣질은 두 농가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정 농가가 소유한 맹지전이 농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여러 농가가 맹지전 방향으로 밭 가장자리를 따

라 농로가 아닌 잣질을 만드는 형국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잣질이야 말로 같은 마을의 맹지전을 소유한 농가주인을 배려하는 지혜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 울담 너머로 이웃과 대화하는 할머니

자료: 남제주군, 2006, 230.



〈그림 6〉 잣질(한림읍 귀덕1리)

자료: 필자 촬영(2012년 1월)

제주 섬의 근본적 태생이 화산섬이라는 특성 상 거의 모든 밭에서는 쟁기질을 할 때마다 큰 돌이나 작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돌들을 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만 하는데, 평소에 일손 부족과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먼 거리까지 운반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한 밭의 일부가 깎여나가는 불편한 사실을 감내하면서도 이왕이면 맹지전을 소유한 농가주인의 입장을 헤아리며 맹지전 방향으로 크고 작은 돌들을 쌓아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해 보면, 잣질은 애당초 개개인이 밭을 개간한 시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잣질은 송성대 교수가 주장하는 ‘따포문화’(이웃과 함께 하는 대동주의 문화)의 실체적 요소로서, 제주도민들의 독립적이면서도 상호협력 정신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키워드(key word)라 할 수 있을 것이다(송성대, 2001: 174-175).

3. 서로 협력하며 공동체를 우선시 하는 지혜

제주 돌담이라는 문화 코드는 제주도민들의 마을 공동체와도 곧바로 직결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를 두자면, 제주도민들이 발전시켜 온 전통문화는 돌담의 공동체 문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고성보 외, 2009: 25). 제주도의 거의 모든 마을에서는, 마을주민들의 협력하에 신당(특히 본향당)과 포제단을 조성하고, 나아가 해안마을의 경우에는 용천수와 포구의 가장자리에 돌담을 축조하며, 또 산간이나 중산간 마을에서는 봉천수를 확보한 후 가장자리에 돌담을 축조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해안마을이든 산간·중산간 마을이든 마을 어귀에는 사악한 기운이나 액(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사탑(防邪塔)을 쌓기도 한다. 이들 돌담은 모두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 모두를 위해 축조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들 돌담의 축조는 마을 공동체를 보호하고 존속시켜 나가기 위한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포제단은 마을 공동체의 번영과 주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유교식 제의 장소이다. 포제단 내부에는 2~3단으로 구성된 제단이 마련되고, 일부 마을에서는 제단 뒤쪽 중앙부에 위패를 모셔두기도 한다. 신당은 주로 마을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 성공, 운수 등을 기원하는 장소로서 근년에는 마을 단위로 당제(堂祭)를 지내기도 한다. 포제단이 마을단위의 남성 중심적 제의 장소라고 한다면, 신당은 개별가구 단위의 여성 중심적 기원 장소로서 대비된다(정광중, 2011: 167). 이들 제의 장소와 기원 장소에는 보통 가장자리에 돌담을 두르는데, 돌담은 엄숙한 장소로서의 위엄성을 유지함은 물론이고 비바람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어쨌든, 이들 돌담은 마을주민들 모두를 위하여 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돌담인 셈이다.

평소에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천수와 봉천수의 가장자리에 두르는 돌담이나 포구의 가장자리를 두르는 돌담도 마을 내의 특정 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안전하

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할 때(정광중, 2015), 이들 돌담 역시도 마을 공동체를 위한 시설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방사탑은 어떤가. 방사탑은 특정마을의 지형적 조건이 허(虛)하다고 생각되거나 살(煞)이 비치는 장소에 원탑 또는 원뿔형의 돌담을 쌓는 것인데(강정효, 2008: 101), 이 돌탑도 마을주민들을 동원하여 정성스레 쌓아올리는 것이 상례이다. 이 배경에는 마을 내부로 나쁜 기운이 들어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또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정은선, 1999: 16). 이처럼 마을 주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돌담을 협력하여 축조한다는 사실 자체는 무엇보다도 마을 공동체를 우선시하고자 하는 정성과 마음이 구성원 모두에게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연안바다에는 원담 또는 갯담이라 부르는 전통적인 어로 시설이 있다³⁾. 이를 두고 민속학자인 주장현 박사는 돌그물이라 부르기도 한다(주장현, 2011: 53). 이 원담이나 갯담은 보통 육지 쪽에서 아주 가까운 지점을 택하여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돌담을 쌓은 후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하여 원담 안으로 들어온 고기를 잡는 어로시설이다(정광중·김은석, 2008: 20). 이 원담도 보통은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축조하고 보수하며 사용한다. 제주도의 원담이 공동 축조 및 공동 사용이란 관점에서는 육지부의 돌살(혹은 독살)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정광중, 2010). 이처럼 제주도에서는 개개인이 행하기 힘들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시설에는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대응하고 대처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러한 제주도민들의 공동체적 사고체계는 제주도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배경이라 아니할 수

3) 고광민의 조사(2003, 341-352)에 따르면, 원담 혹은 갯담은 제주도내 해안 마을에 약 342개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포구 확장, 방파제 축조 및 확대, 해안도로의 연장 확대, 관광용 시설물의 축조, 방치 및 자연파괴 등으로 많은 수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 좌혜경·정광중의 재조사에서는 98개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서귀포시권 해안마을의 원담 또는 갯담이 이미 파괴되었거나 미사용으로 잊어진 것(위치 불명)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없다. 강조해서 말하면, 제주도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위하여 끊임없이 지혜를 발휘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현시점까지도 전통적인 생활문화가 그나마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정광중, 2012b: 483).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주로 필자의 연구시각과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존하면서 제주 돌담의 가치와 돌담 속에 숨겨진 선조들의 지혜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분석하였다. 여기서 필자의 연구시각을 강조한 것은 다소 주관적인 해석에 치중한 점이 많다는 배경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주 돌담의 가치나 거기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 발굴은 또 다른 관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 돌담이 지니는 가치는 생활 문화적 가치, 경관적 가치, 학술적 가치 및 유산적 가치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생활 문화적 가치로서는 제주도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돌담이 출현하게 되었음을 강조할 수 있다. 제주 돌담의 경관적 가치로는 돌담이 특별한 목적을 지닌 기능체로서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선과 면이 부각되는 미학적 구조와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돌담이 경관적 가치도 제주도민들의 생활사와 문화 특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로서 부각되는 사실임을 명시하였다. 제주 돌담의 학술적 가치로는 제주도민들의 생활사와 생활문화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실체로서의 중요성과 거친 자연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제주도민들의 사고체계와 행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존재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끝으로, 제주 돌담의 유산적 가치에서는 돌담 경관요소

의 분포적 특성과 다양성, 생활문화의 전승적 관점에서 평가할 때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다.

제주 돌담에 숨겨진 선조들의 지혜 찾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의 지혜, 즉 거친 자연환경을 극복하려는 지혜, 타인을 배려하는 지혜 그리고 서로 협력하며 공동체를 우선시 하는 지혜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먼저 거친 자연환경을 극복하려는 지혜에서는 울담과 밭담의 사례에서 파악되는 것처럼 비와 눈, 바람, 태풍 등의 기후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크게 발휘되었다는 사실이 부각된다.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는 지혜에서는 이웃과 연결되는 울담과 잣질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일상생활이나 농업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십분 고려하는 지혜가 작동되는 배경을 강조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를 우선시 하는 지혜에서는 포제단과 신당 돌담, 용천수와 봉천수 돌담, 방사탑, 원담의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은 우선적으로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축조하는 지혜가 발휘되고 있음을 부각시킬 수 있다. 나아가 이처럼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지혜의 밑바탕에는 기본적으로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축조, 공동보수, 공동사용이라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믿음과 규칙이 항상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소홀했던 제주 돌담의 가치 발굴이나 선조들의 지혜 찾기 과정은 향후에도 도·내외 여러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돌담 연구 속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성기, 2010, 「초등 사회과 교육에서의 비교 지역 관점을 위한 문화경관 이해의 유용성-제주돌담경관과 유럽 보카주 경관의 사례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1, 「문화경관으로서 제주 발담의 의미」,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3, 223-233.
- _____, 2016, 「제주도 농업환경에 따른 발담의 존재형태와 농가인식에 대한 연구」, 제주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정효, 2000, 『화산 섬 돌이야기』, 도서출판 각.
- _____, 2008, 『제주거옥대-제주자연마을의 방사용 돌담 보고서-』, 도서출판 각.
- 고광민, 2003, 『제주도의 포구 연구』 (역사·민속학적 접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고성보·강정효·최용복·양진철, 2009, 『제주의 돌담』 (가치평가와 문화관광자원화 방안),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유정, 2012, 『제주의 돌문화』, 서귀포문화원.
- _____, 2015, 『제주 돌담』, 대원사.
- 김종석, 1998,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石)문화」,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제주군, 2006, 『군제 60주년 남제주 화보집』, 남제주군.
- 송성대, 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인의 해민정신, 개정증보판), 도서출판 각.
- 이윤형·고광민, 2006,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 정광중, 2011, 「제주도 농어촌 지역 마을자원의 발굴과 활용에 대한 시론적 연구-애월읍 신엄마을을 사례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3, 153-170.
- _____, 2012a, 「제주의 돌문화와 서부지역의 돌문화 특성」 (『한국지리지 제주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323-341.
- _____, 2012b, 「제주의 돌문화」 (『STORY OF JEJU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482-500.
- _____, 2016, 「제주도 생활문화의 특성과 용천수 수변공간의 가치 탐

- 색」, 『국토지리학회지』 50-3, 253-270.
- 정광중·강성기, 2013, 「장소자산으로서 제주 돌담의 가치와 활용방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1, 99-117.
- 정은선, 1999, 「제주도의 담과 거옥대에 관한 연구」, 제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좌혜경·정광중, 2013, 「제주 해양유적과 문화 보전·활용 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주강현, 2011, 『제주 기행』, 웅진지식하우스.

[신문기사 자료]

- 정광중, 2010, 「제주문화의 연결고리, 갯담과 불턱」<3448>, 제주일보 제주시론(1월 30일자).
- _____, 2013, 「제주 밭담을 사수하라」<4179>, 제주일보 제주시론(4월 3일자).
- _____, 2015, 「물통(봉천수), 또 하나의 거울」<4666>, 제주일보 제주시론(9월 7일자).

Abstract

Exploring the Value of Jeju's Stone Walls and the Wisdom of the Ancestors Hidden within Them

Jeong, Kwang-Jo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value of Jeju's stone walls and the wisdom of the ancestors hidden within them. The core conten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value of Jeju's stone walls can highlight the following values: culture of life, landscape, academic and heritage.

Discovering ancestors' wisdom hidden within Jeju's stone walls can largely emphasize the wisdom from three perspectives: overcoming a harsh natural environment, caring for others, and cooperating with each other and prioritizing the community. Ultimately, this wisdom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Jeju ancestors' desire to achieve a harmonious society while actively responding to a harsh natural environment and maintaining a community-oriented society.

This study is largely biased toward this author's subjective perspective and interpretation. Consequently, exploring the value of Jeju's stone walls and ancestors' wisdom within them suggests that it can be interpreted from another perspective. Such a study result is expected to be continuously presented in the future.

* Professor, Department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 돌담의 가치와 돌담 속 숨겨진 선조들의 지혜 찾기

KeyWords : Jeju's stone walls, Value of the culture of life,
landscape, academic and heritage, Natural environment,
Community, A harmonious society

교신: 정광중 632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6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사회과교육전공
(E-Mail: jeongkj@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7. 07. 14.

심사완료일: 2017. 08. 07.

게재확정일: 2017. 08. 10.